

## 한강의 「아기부처」에 나타난 혐오의 폭력성과 공거의 윤리

주 지 영\*

### 요약

이 글은 한강 소설 「아기부처」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윤리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주디스 버틀러의 윤리적 주체 개념을 활용해, 주체가 자신의 성립조건인 보편규범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주체의 신체적 취약성과 타자연관성을 자각하면서 타자와의 공거를 지향하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2장에서는 보편규범에 의해 비정상인 타자화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정상만이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의 화상 흉터는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적 보편규범에 의해 비체적인 것으로 여겨져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는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흉터를 감추고 보편규범을 수행한다.

3장에서는 자기동일적 주체 '나'에 의해 타자의 타자성이 말살당하고 타자가 억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타자에 대한 주체의 '동정', 타자의 타자성을 말살하는 '혐오', 타자를 호모 시케르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면서 '시혜'와 '징벌'로 배제하는 이중적 태도로 제시된다.

4장에서는 주체가 근본적 취약성과 타자와의 상호의존성을 깨닫고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타자와의 공거를 지향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은, 주체의 통일성을 부정하고 타자와의 필연적 연루를 깨닫는 것, 타자의 입장에서 타자의 아픔과 공감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이성적 주체에서 벗어나 감정적 주체로서 주체의 근본적 취약성을 깨닫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주제어: 한강, 「아기부처」, 주체, 타자, 보편규범, 타자성, 반성적 성찰, 근본적 취약성, 타자연관성, 타자와의 공거, 윤리적 주체, 혐오, 감정적 주체

\*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조교수

목차

1. 머리말
2. 타자의 타자성, 비체를 향한 혐오의 정동
3. 타자를 억압하는 주체의 양상: 동정, 혐오, 시혜와 징벌이라는 주체의 폭력
4. 주체의 반성적 성찰과 타자와의 공거
5. 맺음말

## 1. 머리말

한강은 1993년 『문학과사회』에 시로,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붉은 닻」으로 등단한 이후 지금까지 10여 권의 소설집과 장편소설을 출간하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이다.<sup>1)</sup>

이 글은 한강 작품 중 1999년에 발표된 「아기부처」(『문학과사회』, 1999, 여름호)를 대상으로 하여, 작품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윤리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이 「아기부처」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 한국 소설에서 여성 문제를 다루는 경우, 2000년대 이전 작품에서 여성은 주로 억압받는 타자로 그려진다. 가부장제 혹은 남성중심주의 아래에서 여성의 희생을 그려내는 작품,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여성의 삶을 그려내는 작품 등에서 여성은 도구화, 수단화된 타자이자 희생양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0년대에 이르면서 한국 소설에서 여성은 타자화된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주체/타자, 남성/여성의 이분법을 넘어 여성

1) 현재까지 출간된 한강의 주요 소설집 혹은 장편소설로는 『여수의 사랑』(1995), 『검은 사슴』(1998), 『그대의 차가운 손』(2002), 『내 여자의 열매』(2000), 『채식주의자』(2007), 『노랑무늬영원』(2012), 『바람이 분다, 가라』(2010), 『희랍어 시간』(2011), 『소년이 온다』(2014), 『흰』(2018), 『작별하지 않는다』(2021) 등이 있다.

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주어’의 자리로 이동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구체화된다.

한강의 작품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다루면서 동시에 이를 넘어서 윤리성에 대한 것으로 그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의 여성 문제를 다루는 소설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한강 작품은 남성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남성 중심의 보편규범을 해체할 수 있는 대안적 규범을 지향함으로써 여성이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 거듭날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내 여자의 열매」(『창작과 비평』, 1997, 봄호)에서 출발해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창비, 2007)로 이어지는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중 특히 「아기부처」가 주목할만한데, 이 작품은 여성 주체를 내세워 주체와 타자의 관계 설정에 바탕을 두고 관계의 윤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곧 이 작품은 억압받는 타자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보편규범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통해 보편규범의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주체의 반성적 성찰을 통해 주체와 타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특수규범을 지향하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다루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기부처」는 2000년대 이후 ‘주어’의 자리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국 소설의 등장을 알리는 선도적인 자리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한강 작품세계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주체와 타자의 윤리적 관계 문제를 『채식주의자』 연작보다 훨씬 앞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강 작품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여성의 생명 주체로의 복권 측면을 변신 모티프와 관련해 고찰하는 연구<sup>2)</sup>, 여성 문제와 생태 문제를 연결해

2) 송연주, 「여성소설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와 환상성 연구-한강, 오수연, 송경아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283-308면.; 양현진, 「한강 소설의 분신(分身) 구조와 주체성」,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247-280면.; 나

‘채식’과 ‘식물되기’의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sup>3)</sup>, 들뢰즈, 가타리, 라캉의 욕망 이론을 바탕으로 해 여성 주체의 욕망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sup>4)</sup>, 레비나스 등의 이론을 원용하여 주체화 양상을 고찰하는 연구<sup>5)</sup>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이 글의 연구목적과 관련해 주체화 양상을 고찰하는 기존 연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기존 연구는 한강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 인물과 관련해 여성의 주체화 양상에 주목하면서,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복종과 거부의 복합 관계 속에서 여성 인물이 우울증적 주체로 형성되는 측면에 주로 집중한다. 그 결과,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윤리에 중점을 둔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음, 기존 연구는 한강 작품세계를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문학과지성사, 1995) 단계, 『채식주의자』 연작 단계, 『바람이 분다, 가라』(문학과지성사, 2010), 『희랍어 시간』(문학동네, 2011) 등의 단계로 나누고, 여성 인물에 나타나는 주체화 측면을 『채식주의자』 연작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

병철, 「한강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환상과 에로스의 회생-「내 여자의 열매」와 「몽고반점」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61, 청람어문교육학회, 2017, 291-323면.; 심진경, 「변신하는 주체와 심리적 현실로서의 환상-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5,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61-76면.

- 3) 함정임, 「2000년대 한국 소설의 생태학적 고찰 : 한강, 편혜영, 박형서, 김태용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9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0, 213-214면.; 신수정, 「한강의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9권 2호, 문학과환경학회, 2010, 193-211면.
- 4) 정미숙, 「욕망,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의 욕망 분석」, 『코기토』 6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7-32면.; 김미정, 「한강의 소설이 그리는 「식물-되기」를 들뢰즈 이론으로 읽기」, 『현대영미어문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현대영미어문학회, 2019, 24-29면.
- 5)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451-481면.; 박진, 「한강 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의 양상과 타자 윤리 문제」,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287-309면.; 손정수, 「식물이 자라는 속도로 글쓰기-한강론」, 『작가세계』 88, 2011, 봄호.

인해 「아기부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기존 연구가 여성 인물의 주체화 과정을 주로 ‘식물성’의 세계와 연결해 논의해 왔다는 점, 이 과정에서 「아기부처」는 식물성의 세계와 무관한 작품으로 여겨졌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물 되기와 관련된 여성의 주체화로 한정해 한강 작품에 접근할 때 그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강 작품에서 여성 인물은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대안적 특수규범을 지향하는데, 식물성은 그러한 표지일 뿐이다. 나아가 한강 작품은 남성 주체와 여성 타자라는 도식성을 벗어나, 여성이 폭력적 주체이면서 반성적 주체, 혹은 억압받는 타자 등이 될 수 있으며, 남성 또한 주체이자 타자가 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킨다. 이들 인물을 통해 폭력적 보편규범을 비판하고, 주체와 타자의 새로운 윤리적 관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한강 작품 중 「아기부처」는 「내 여자의 열매」와 『채식주의자』 연작의 중간자리에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윤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에, 이 측면에서 한강 소설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기부처」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윤리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을 인용하고자 한다. 버틀러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및 규범과의 문제를 재사유함으로써 주체 개념을 윤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있다. 규범은 하나의 시공간적 지평에서 다른 지평으로 전이되면서 변화한다. 그렇지 않고, 어제와 오늘의 동일성을 주장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규범을 전체 사회의 윤리로 보편화해 타자의 개별성과 구체성을 억압할 때 규범은 추상적 보편성으로 전락한다.<sup>6)</sup> 한편 추상적 보편규범에 종속된 주체는 스스로를 완벽한 보편성 자체로 착각하고 도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외적 조건을 고

6) Judith Butler,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16면.

려하지 않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적 환상에 빠진다<sup>7)</sup>). 이 환상에 의해 주체는 자신의 규범을 절대화하고 타자의 타자성을 말살하면서 타자를 폭력적으로 지배한다.

새로운 윤리적 주체는 자신의 성립조건인 보편규범과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sup>8)</sup>하고, 주체가 근본적으로 신체적 취약성을 지니면서 필연적으로 타자와 연관되어 있다<sup>9)</sup>는 존재론적 한계를 자각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키지 않으면서 타자를 살리는 윤리<sup>10)</sup>로 나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타자와의 공거(cohabitation)<sup>11)</sup>를 지향해야 한다.

주체와 타자의 새로운 관계 정립 문제로 그 소설적 주제를 심화 확장시키고 있는 「아기부처」<sup>12)</sup>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기부처」는 화상의 흉터를 지닌 남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의 몸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나’가 원인 모를 증상을 겪으면서 남편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통해 타자와의 공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작품은 두 층위의 서사로 이루어진다. 먼저, ‘나(선희)-그(남편)’의 서사이다. ‘나’는 프라임타임의 앵커인 그와의 불화가 깊어지면서 그의 매끄러운 얼굴 아래에 숨겨진 화상 흉터에 뒤덮인 몸을 혐오하고 타인의 몸

7) 위의 책, 187면.

8) 위의 책, 19-21/31면.

9) Judith Butler,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62면.

10) 버틀러의 저작은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고민을 핵심 과제로 깔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버틀러는 주체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겸손함의 윤리,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지 않는 윤리, 타자를 살리는 윤리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 새로운 윤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혜은,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영미문화페미니즘』 19권 2호,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2011, 163면.

11) Judith Butler, *Parting Ways: Jewishness and the Critique of Zionism*, New York: Columbia UP, 2012, p.111.

12) 논의를 위한 텍스트는 2000년 창비에서 발간한 『내 여자의 열매』에 실린 「아기부처」로 삼는다.

을 보듯 하며 결혼생활을 견딘다. 그러다 그를 사랑한다는 여자의 전화를 받고 ‘나’는 사랑 없이 견뎌왔던 그와의 결혼생활을 끝낼 생각을 하면서 원인 모를 증상을 겪으며 말라간다. 그러다가 자신의 증상이 그의 몸을 혐오하는 자신의 마음에 있었음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분노한다. 이혼 후 나가서 살 집을 구해놓고 삽화 일을 하면서 결별을 준비하던 중, 그가 자신의 흉터 때문에 여자에게 결별을 통보받고 머리를 쪼으며 괴로워하는 것을 본다. ‘나’는 그의 상처에 약을 바르며 서로를 망쳐갔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려 한다.

다음, ‘나’-어머니의 서사이다.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고 재활치료를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한평생 칼을 품고 살아왔다)을 후회하며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나’에게 감정을 숨기고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냉정하고 강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것을 후회한다.

이와 같은 서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나’, ‘나’의 남편인 그, ‘나’의 어머니로 설정된 등장인물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그 관계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윤리성의 측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보편규범에 의해 비정상은 타자화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정상만이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자기동일적 주체에 의해 타자의 타자성이 말살당하고 타자가 억압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주체가 근본적 취약성과 타자와의 상호의존성을 깨닫고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타자와의 공거를 지향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2. 타자의 타자성, 비체를 향한 혐오의 정동

그는 중학생 때 화재로 흉터를 입는다. 이후 그는 자신의 ‘붉게 일그러진 알몸’에 쏟아지는 혐오, 경멸, 거부, 수근거림, 힐끔거림 등의 시선을

감당하면서 흉터의 상처가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화상을 입지 않은 매끄러운 얼굴과 손만을 드러내고 살면서 성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그가 흉터를 극구 가리려고 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몸/비정상적인 몸’이라는 이분법이 지배하는 보편규범에 길들여진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 ‘비체(objec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체는 여성성 혹은 모성성과 집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곧 어머니의 양수, 생리혈 등이 비체의 대표적인 예이며, 그 외 몸 밖으로 배출되는 배설물, 시체, 나아가 반역자, 거짓말쟁이 등과 같은 것을 지칭한다<sup>13)</sup>. 이러한 비체는 ‘깨끗하고 적절한 몸’으로 표상되는 이성적 주체의 정상적인 몸과, ‘비천하고 형태가 변형되고 완전성을 잃은’ 몸으로 표상되는 비정상적인 몸<sup>14)</sup>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후자의 것을 지칭한다. 인간은 실상 이러한 비체를 자신 속에 내포하고 있지만, 비체는 상징계의 질서와 경계를 허무는 공포스러운 힘이라는 인식에 길들여져 비체를 배척함으로써 이성적 주체로 구성된다. 이처럼 친숙한 내 안의 것들을 낯선 이물질처럼 불결하게 여기고 추방하여 타자의 속성으로 투사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감정이 혐오<sup>15)</sup>이다.

그의 몸에 남아 있는 붉게 일그러진 화상의 흉터는 그의 몸을 정상성을 획득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몸, 혹은 훼손된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는 정상/비정상의 몸이라는 이분법에 길들여지면서 자신의 흉터를 비체와 같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 ‘붉게 일그러진 몸’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그의 인식은 정상적인 일상성으로 여겨지는 영역 바깥으로 그의 삶을 내몬다. 수영장에 가지 않고, 한 여름에도 반팔을 입지 않음으로써 비정상적인 몸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13) Julia Kristeva,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1면.

14) Barbara Creed, 손희정 역, 『여성괴물』, 여이연, 1998, 38면.

15) 임옥희, 『혐오발언, 혐오감, 타자로서 이웃』, 『도시인문학연구』 8권 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6, 93면.



알몸을 철저히 감추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의 흉터는 그로 하여금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적 보편규범을 전복시킬 자리로 나아가게 할 하나의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유한한 존재이다. 인간이 지닌 이러한 근본적 취약성을 깨달을 때 주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타자와 더불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윤리적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 주체/타자,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의 근본적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규범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신적 폭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의 출발점이 되는 것<sup>16)</sup>이다. 이런 입장에 설 때, 그는 그의 흉터로 표상되는 아픔을 간직하면서, 자신처럼 보편규범으로부터 배제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타자를 억압하는 보편규범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흉터를 감춘 채 정상적인 몸, 깨끗하고 매끄러운 몸이 지배하는 보편규범의 영역에서 인정받는 주체가 되고자 한다. 그것이 출세지향주의, 성공제일주의 같은 보편규범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대학입시에 성공하면 내 모든 것이 보상”된다고, “방송국 입사하면 모든 것이 보상된다”고 생각하면서 “실없어 보이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시시한 연애도 하지 않”는다(96). “높이 올라간 상태”를 이뤄내기 위해 그는 “상승”을 욕망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의심하고 이미지를 관리”(97)한다. 그는 “모교의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할 계획”이고, “방송가 이야기를 써서 넘기기로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외도로 만난 “그녀를 얻기 위해”(98)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공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의 바람은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깨끗하고 쾌적한 것’을 향한다. 그러면서 ‘초라

16) 조현준, 「갈림길을 마주한 불확실한 삶」, 『시대와 철학』 25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101면,

한 것, 머뭇거리는 태도, 가난한 동네'를 외면하고 거부한다. 그에게 후자의 측면은 삶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며, 전자의 측면은 삶의 성공을 의미한다. 대학입시, 방송국 입사 등이 일종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높이 올라간 상태'를 이뤄내기 위해 계산하고 의심하고 이미지를 관리한다. 이처럼 그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보편규범의 영역에서 '성공과 상승'의 욕망을 성취해가지만, 그의 알몸은 여전히 훼손된 몸, 일그러진 몸이라는 비정상성의 영역에 놓여 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감추고 외면하면서 보편규범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비체적인 몸에 대한 부정성을 스스로 강화시킨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결핍이 강화된다. 그는 보편규범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을 강하게 드러내지만, 한편으로 그의 흉터에 각인된 자신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해 줄 타자를 갈망한다. 그러나 그의 아픔을 함께 할 타자는 부재한다. 그 스스로 그의 아픈 상처를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위로받고 기대고 싶은 타자의 부재로 인해 그의 성공적인 삶 이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결핍이 자리하게 되고, 그 결핍으로 인해 그의 삶은 파국으로 치달리게 된다.

① “지난 삼년 동안 한번이라도 기꺼이 나와 몸을 섞은 적이 있었는가”고 한달 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더러운 벌레 피하듯 몸을 피하곤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그럴 때마다 내가 남모르게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아느냐”고도 했다.

그애는 날 원해. 상대방이 날 원한다는 걸 느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까마득히 잊고 지냈어. (100)

② 나는 행복할 거야,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랜 당신과 달라.

당신하고 수숙이 끝나는 대로 곧 그애를 아버지께 보일 생각이야.(111)

③ “씨팔 더러운, 더러운……”

말을 채 맺기 전 그의 눈에서 거짓말 같은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다 똑같아.”

그는 주먹으로 눈을 문질렀다. 꺾일 듯 꺾일 듯 욕실로 향하던 그의 다리가 벽에 부딪히며 고꾸라질 뻔했다.

“여자들이란…… 씨발, 인간들이란 다 똑같아.”

(중략)

“우스워…… 우스워 못살겠어. 씨발, 당신한테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는군!”

그의 허리가 구십도로 꺾였다. 중심을 잃어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는 두 팔로 세면대 모서리를 붙들었다. 단단한 둥근 면에 머리를 짓찧기 시작했다.(119~120)

그는 매끄럽고 잘생긴 외모와 프라임타임 앵커로 승승장구하면서 외면적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자신의 흉터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그의 내면의 바람은 번번이 좌절된다. 그의 아내인 ‘나’조차 그의 흉터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의 아내인 ‘나’는 그와 ‘몸을 섞는’ 일을 피하고, 더욱이 그를 ‘더러운 벌레 피하듯’ 멀리한다(①). 그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②), 다른 여자 역시 그의 붉게 일그러진 흉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난다.

결국 그는 여자와 인간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절망하면서 유일하게 매끄러운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자해한다(③). 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동안 그가 성공적인 삶이라 믿고 수행해 왔던 보편규범을 의심하고 그것에 스스로 균열을 가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흉터와 그 흉터로 인한 아픔과 상실감을 함께 나누는 타자가 존재할 때 그의 행복은 영위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아픔을 공유하는 타자에 대한 그의 이러한 욕망은, 후술하겠지만 이 작품에서 ‘나’로 하여금 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도

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한다.

이상에서 보듯, 그의 알몸에 새겨진 흉터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취약성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정상성의 영역에서 보편규범을 수행하는 인간은 흠 없고 무결하고 완전한 존재로 여겨진다. 인간의 근본적인 취약성은 철저히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성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추방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취약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타자의 속성으로 투사하는 것에서 비롯된 감정이 바로 혐오이다. 그는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흉터를 감추고 보편규범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정상성을 향한 욕망은 인간의 근본적인 취약성에 대한 부정을 강화하고, 이에 비례해 결핍은 강화되는 것이다.

### 3. 타자를 억압하는 주체의 양상: 동정, 혐오, 시혜와 징벌이라는 주체의 폭력

‘나’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세 번에 걸쳐 변모한다. 첫 번째로, 주체의 자기동일화에 근거해 타자의 타자성을 말살하면서 타자를 동정하는 태도이다.

나는 그의 흉터와 용기를 함께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니, 바로 그 흉터가 나에게 안겨준 충격 때문에, 평생 숨기고 싶었을 알몸을 보여줄 만큼 나를 신뢰해준 데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를 받아들였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86)

‘나’가 그를 받아들인 이유로 ‘흉터가 준 충격’, ‘나를 신뢰해준 데 대한 고마움’이 제시되어 있다. ‘흉터로 인한 충격’은 ‘나’가 그의 흉터에 새겨진 그의 아픔을 감정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흉터를 통해 그의 몸이

비체적인 것, 타자적인 것임을 인지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신뢰’는 주체인 ‘나’에 의해 타자화된 그가 ‘나’를 신뢰한다고 ‘나’ 스스로 느낀 것에 해당한다. 그는 자신의 신체의 취약성을 ‘나’에게 최초로 드러냄으로써 ‘나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런 그의 행동을 ‘나’라는 주체의 자기동일적 입장에서 판단해 ‘신뢰’로 재사유하는 것이다.

곧 ‘나는 그의 흉터에 충격받았지만, 비체화되고 타자화된 그가 주체인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복종하기에, ‘동정’하는 입장에서 그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주체와 타자의 인정방식과 관련해 볼 때, 이것은 주체가 자기동일적 사유에 근거해 타자의 타자성을 말살하면서 타자를 주체의 입장에서 재단하고 전유하는 것<sup>17)</sup>에 해당한다. 이러한 태도는 주체가 자신의 한계, 곧 인간의 근본적인 신체적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지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판단을 유보한 채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타자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sup>18)</sup>하는 윤리적 지점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그’에 대한 ‘나의 태도는 주체의 자기동일성에 근거한 ‘동정’에 머물러 있으며, 그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그의 아픔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그의 훼손된 몸에 대한 혐오와 경멸의 태도이다. ‘나는 ‘흉터로 일그러진 몸/매끄러운 몸’을 구분하면서 전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다. 이 지점에서 흉터의 몸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배제하는 자기동일적인 사고가 드러난다. ‘나는 그와의 결혼생활에서 자신과는 다른 그의 면모를 발견한다. ‘나’와 같지 않음, ‘나’와 다름을 발견하면서 ‘나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키워간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나’와 다른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타자의 타자성을 배척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는 그가 지향하는 ‘화려한 세계’와, 그것에 어

17) Judith Butler, 『윤리적 폭력 비판』, 앞의 책, 51면.

18) 이현재, 「인간의 자기 한계 인식과 여성주의적 인정의 윤리」, 『한국여성학』 23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7, 137면.

울리지 않는 그의 일그러진 흉터의 몸이 이질적이고 상반된 것임을 간파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훼손된 몸을 혐오하고, 깨끗하고 매끄러운 몸, 정상적인 몸에 대한 갈망을 강화한다.

① 언제부턴가,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나는 그의 흉터가 몸에 닿는 것이 괴로웠다. 가슴에 닿는 감촉이 싫어 몸을 쉬울 때면 상의를 벗지 않으려 했고, 그나마 나도 모르게 될 수 있으면 잠자리를 피했다. 그가 안으려 하면 잠에 취한 척하며 돌아누웠다. 그가 손을 뺄으면 잠결인 척 밀어내버리곤 했다. (87)

② 눈부시게 흰 몸이었다. 근육이 붙은 것은 아니지만 군살이 없었고, 그렇다고 마르지도 않았다. 지극히 평범한 그 반라의 몸에서 나는 눈을 땔 수 없었다.

온몸의 핏방울들이 머리끝으로 몰려올라와 곤두섰다. 그 남자애의 가슴을 만지고 싶었다. 그 매끄러운 살갓에 젖가슴을 부비고 싶었다. 내 매끄러운 몸이 그애의 몸에 스치는 느낌, 부드러운 살끼리 찰지게 문질러지는 느낌을 맛보고 싶었다. (88)

③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나는 그의 흉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 흉터 때문에 그를 혐오하고 있었다. (92)

‘나’는 남편의 흉터로 일그러진 몸에 대해서는 혐오와 경멸의 시선과 거부의 태도를 드러낸다. 결혼 초에 그와의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그의 흉터가 몸에 닿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여유’를 잃어간다(①). 그러다 ②에서 보듯, 그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등산로에서 상체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한 남자애를 보고, ‘나’는 그 남자애의 ‘눈부시게 흰 몸’, ‘지극히 평범한 반라의 몸’, ‘매끄러운 몸’, ‘부드러운 살’을 향한 욕망을 드러낸다. 정상적인 몸에 대한 이같은 욕망이 강화되면서 비정상적인 남편의 몸에 대한 혐오, 거부, 경멸의 태도도 증폭된다.

이러한 시선과 태도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억압하고 보편규범을 지향하는 주체 ‘나’의 자기동일적 폭력성을 읽을 수 있다. 젊은 남자의 몸을 눈부시게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살끼리 찰지게 문질러지는 느낌’을 맛보고 싶어 하는 장면에서 ‘나의 정상적인 몸을 향한 갈망은 그의 흉터에 대한 혐오(③)와 더불어 정점에 이른다.

세 번째로, 나는 인간/비인간, 정상/비정상의 경계를 짓고, 전자에 속한 주체로서의 ‘나’가 그를 후자의 영역, 곧 구성적 외부<sup>19)</sup>로 추방하여 ‘나’와는 전혀 무관한 타자로서의 타인, 나아가 일종의 호모 사케르적<sup>20)</sup>인 타인으로 취급한다. 그러면서 추방된 타자로서의 그에게 시혜적 태도와 징벌적 태도라는 이중적 태도<sup>21)</sup>를 취함으로써 그를 철저히 배제, 억압한다.

① 이따금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있는데, 네 몸을 건디며 살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87)

19) 규범들의 반복을 통해 시간적인 과정 속에서 산출되는 것이 구성이라면, 이러한 반복에 의해 구성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틈과 균열들, 말하자면 규범을 벗어나거나 넘어서는 것, 그리고 규범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서는 완전히 정의되거나 고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개시되는 것이 일종의 구성적 외부이다. 포함과 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계, 말하자면 우리에게 의해 지시되는 대상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고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짓는 일정한 경계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시는 규범적이고 폭력적인 위력을 띤다. 이처럼 담론이 스스로를 구축하기 위해 배제하지만, 그러한 담론 자체의 동일성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구성적 외부이다. Judith Butler, 김윤성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33~40면.

20) 정상적인 내부에 남아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유로운 외부가 될 수도 없는 잡종으로서의 존재, 배제되었지만 포함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별거벗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호모 사케르(homo-sacer)이다. Giorgio Agamben,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179면.

21) 빈곤층을 두고, 사회적 약자의 개인 자질에 그 책임을 지우는 담론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고립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조건 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타자화해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베푸는 온정주의 정책과 징벌주의 정책 적용을 정당화한다. 김은주, 「탈근대적 윤리적 주체화와 책임의 새로운 지평」, 『한국여성철학』 29, 한국여성철학학회, 2018, 81면.

② 나는 타인의 그것처럼 그의 흉터를 보았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 듯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세계가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낮설게, 그리고 오래 바라보았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의무와 책임과 방기, 진실과 거짓 따위가 내 눈앞에서 경계선을 무너뜨려갔다. 나는 그 혼란에 더 이상 놀라거나 당혹스러워하지 않았다. 다만 잡자코 바라보았다. 그 간격이 나를 구해주었다. (93)

③ 나는 긴장하고 있었다. 그에게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한 말을 꺼내기 위해 나는 망설였다. (중략)

나는 천천히,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러나 온몸의 신경이 뻗뻗이 긴장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당신 몸, 그 여자가 알아?”

그의 눈시울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입술가에 흰 거품을 묻힌 채, 타액과 치약이 함께 흘러내리는 칫솔을 거머쥔 채 그는 나를 쏘아보았다. (중략)

“당신같이 이중적이지 않아. 내 모든 걸 다 좋아할 거야.”

조금 있다가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아직 몰라?”

별안간 그의 주먹이 벽을 내리쳤다. (82~83)

‘나’는 그의 몸에 대한 혐오를 ‘인내’하고 ‘견디며’ 그와 함께 했지만, 그가 의도를 하자 ‘나’는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①). ‘나’는 그의 몸에 대한 혐오를 견디지 못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증상을 겪는다. 결국 그와 한 이불을 덮기를 거부하고 거실로 나온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면서 비로소 증상에서 벗어나 잠을 잘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나’는 ‘나’의 차갑고도 냉정한 정신으로 ‘나’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통제하면서 남편을 향한 혐오를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이성과 정신에 기초한 삶의 평정<sup>22)</sup>을 강조하는 보편규범과 그 규범을 수행



하는, 스스로를 자율적이고 의지적인 인간이라 자처하는 주체의 행동에 다름 아니다.

‘나’는 ‘나의 분노를 이성적인 인식론적 틀로 철저히 통제하면서, 그를 구성적 외부로 추방해 일종의 호모 사케르적인 타인으로 취급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②에서 보듯, ‘나’는 이제 그를 타인으로 여기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태도를 취한다. 타인으로서의 그에 대해 주체로서의 ‘나’는 보편규범, 곧 선한 것과 악한 것, 의무와 책임과 방기, 진실과 거짓의 경계, 나아가 부부관계 등과 같은 보편규범을 적용하지 않는다. 타인으로서의 그에게는 인간적인 삶과 규범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나’가 그를 호모 사케르 같은 비인간적 존재로 여김을 드러낸다. 주체로서의 ‘나’가 자리한 구성적 내부가 인간적, 정상적인 세계임을 강화하면서, 그가 있는 구성적 외부는 일종의 포로수용소 같은 비인간적, 비정상적인 세계로 치부하는 것이다. 인간과 비인간, 구성적 내부와 외부, 주체와 호모 사케르 같은 타자의 간격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는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이 때의 호의는 주체로서의 ‘나’가 짐승 같은 타자에게 베푸는 시혜적 태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혜적 태도는 힘 있는 자, 가진 자, 우월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일시적 온정주의에 불과하다.

‘나’는 그에게 시혜적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징벌적 태도를 동시에 드러낸다. 그의 외도를 알게 된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시혜를 베풀지 않는다. 대신 말로써 그에게 상처를 가한다. ③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에게 “당신 몸, 그 여자가 알아?”하고 묻는다. ‘나’는 그 질문이 그에게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한 말임을 알고 있다. 이는 그 물음으로 인해 그가 상처받을 것을, 분노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의 의도된 격발이다. 그 질문은 그의 훼손된 몸의 비체적 속성을 강조한다. 곧 그 질문은 그의 훼손된 몸을 정상성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발화인 동시에 그 여자와의 사

22) 양효실, 「타자와 실패의 윤리」, 『시대와 철학』 6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47면.

량의 불가능성 혹은 성애의 불가능성에 대한 자인을 요구하는 말화라는 점에서 매우 폭력적이다. 그가 즉답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도 집요하게 반복되는 ‘나’의 물음은 ‘비체’로서의 그의 몸을 확인시키고, 낙인찍고, 훼손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일종의 징벌로서 작동한다.

#### 4. 주체의 반성적 성찰과 타자와의 공거

그에 대한 혐오가 강화되고 그의 외도가 증첩되면서 ‘나’는 증상은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다. 그러면서 ‘나’는 세 가지 사건을 매개로 해서 점차 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꾀한다. 첫 번째로 남편의 여자를 통한 자각의 단계, 두 번째로 장애아동을 위한 그림책 삽화를 통한 자각의 단계, 세 번째로 어머니의 변화를 통한 자각의 단계가 그것이다.

첫 번째는 남편의 여자를 통한 자각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은 시간낭비잖아요.”라고 말하는 여자의 전화를 받은 이후 ‘나’는 여자의 말이 ‘와이셔츠 핀처럼 머리에 꽂히는’ 고통을 느끼고, “뽕죽한 것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진다. 그러다가 자주 체하고, 토악질을 하고 체중이 떨어지는 증상을 겪는다. ‘나’는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후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반짝’이는 것을 본다. 늦은 밤 그가 전화를 받고 나간 후 ‘나’는 거실 창문을 통해 주차장에서 그가 여자를 달래며 안고 있는 모습을 본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광채’로 빛나는 남편과 여자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과는 대비되는,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자신의 낯선 얼굴과 자신의 얼굴에 생긴 균열을 마주한다. ‘나’는 남편과 헤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기고, 남편과 이혼을 준비한다. 그러나 몸의 증상은 낫지 않는다. ‘나’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까닭은 ‘나’ 스스로 자신의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① 나는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중략) 그의 흉터가 다만 한겹 얇은 살갓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다는 것이 내 마음의 얇은 한겹까지 벗겨내주지는 못했다.(92)

② 나에 대한 미안함보다 자신의 행복할 권리를 주장하는 그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다. (중략) 내가 분노한 것은 바로 그렇게 몸뚱이를 둥글게 말고 누워 있었던 나 자신에게였다.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이었다. 만일 그것이 타인이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100-101)

여기서 ‘나’는 ‘몸뚱이를 둥글게 말고 누워 있었던 나’와 ‘나를 그렇게 만든 나에게 분노하는 나’로 분리되어 있다. 전자의 ‘나’는 그의 흉터가 ‘한겹 얇은 살갓’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살갓을 걷어내고 그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그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상/비정상, 주체/타자,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적 규범에 길들여져 그의 흉터를 비정상적인 타자의 몸으로 규정하는, 스스로의 ‘마음의 얇은 한겹’을 걷어내지 못한다. 그 결과 ‘나’는 주체로서의 ‘나’의 판단에 따라 그를 전유해 그를 비정상적인 타자로 규정하고 타자의 타자성을 말살하면서 배제하였다. 그런 폭력을 자행하면서도 ‘나’는 그를 동정하고 그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으로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해 온 것이다.

그런 ‘나’에게 ‘나’가 분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주체로 정립시킨 규범과 그 규범을 수행해 온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성찰은 주체가 갖는 불투명성과 그 한계에 대한 자각에 다름 아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불일치 또는 분열은 자율적, 의지적, 자기동일적 주체의 완벽한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정하는 것이자, ‘나’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타자와 ‘나’가 필연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윤리적 출

발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장애아동을 위한 그림책 삽화 그리기를 통한 자각이다. ‘나’는 그림책 삽화를 그리기 위해 아버지가 아이의 말문이 트이도록 애쓰는 장면에 주목한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려야 할 컷은 좀처럼 말을 하려 하지 않는 아이를 위해 말타기놀이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다섯 컷 만화였다. (중략)

아빠의 등에 올라탄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뱉으며 두 팔을 번쩍 올리게 할지, 두 손을 아빠의 어깨에 얹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게 할지를 고민하며 나는 갱지에 이리저리 윤곽을 그려보았다. 아이의 까르륵 숨 넘어가는 웃음이 나를 위로해주었다. 첫 삽화에서부터 줄곧 아이를 위해 눈물겹게 노력해왔던 젊은 아버지의 기쁨이 나를 위로해주었다.

아이의 손을 번쩍 들게 하고 엉덩이도 약간 띄워서 아이가 펄쩍 날아오르는 것처럼 해야겠다. 아빠의 몸까지 함께 날아오르려는 것처럼 해야겠다. (101~102)

‘나’는 여러 번의 반복된 시도 끝에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말을 하는 장면을 두고 어떻게 그려낼까 고심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와 아이의 기뻐하는 몸짓과 표정을 담아내는 그림을 만족스럽게 완성한다. 이 그림은, 자폐를 가진 아이의 말문을 열게 만들려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노력, 아버지를 향해 마음을 여는 아이의 믿음, 아버지와 아이를 둘 다 기쁘게 만드는 아이의 발화, 아버지와 아이의 행복한 표정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과정은 아이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나’가 모두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장면을 통해 이 작품이 강조하는 것은 삽화를 통한 ‘나’의 깨달음이다. ‘나’는 정상인 아버지와 비정상인 아들을 대상으로 삽화를 구성하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다. 정상인인 주체가 비정상인이 타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처럼 서로가 서로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아픔을 정서적으로 공유할 때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가(함께 날아오름) 될 수 있다는 것을 삽화는 강조하고 있다. 삽화 속의 아버지와 아이처럼, 주체로서의 ‘나’ 또한 타자인 그의 흉터에 새겨진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때 ‘나’와 그 사이에 자리 잡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나’는 ‘나’와 그, 주체와 타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판단을 유보한 채 타자의 입장에서 타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삽화 그리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화 그리기’로 상징되는 어머니의 삶의 태도 변화를 통한 자각이다. ‘나’는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감정을 절제하라, 통증을 감춰라, 울지 말고 어떤 허튼소리도 내뱉지 말라’고 교육받았다. 엄격하게 삶을 통제하는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인간으로 커간다. 그런데 증풍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된 이후 어머니는 ‘불화 그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딸을 교육해왔던 것, 그런 방식으로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자신이 살아왔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

.....아이들이란 그저 보살핌 받기만 바라는 법인데, 내가 무거운 것을 들고 오면 못 들어줘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되고, 내가 바늘에 손톱 밀이라도 찢리면 제 손이 아픈 것같이 어쩔 줄을 모르곤 했다. (중략)

난 그게 싫었다.....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언제나 너한테, 제 앞가림 잘하는 네 오빠한테보다 더 엄해지곤 했던 모양이다. .... 네가 덜 웃고, 덜 울고, 덜 상처받길 바랬다. (중략)

살다보면 너한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있을 거다..... 수많은 것들이 한

꺼번에 후회되는 날이. (중략)

……하지만 그걸 말로 남한테 설명할 수가 있다. 자식한테라고 설명할 수 있겠나. 자기가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걸. 너희 외할머니가 눈감으시기 전에 나더러 “돌아보기가 부끄럽다, 부끄러워 어떻게 가냐” 하시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으니. (122~123)

세상을 버티기 위해서는 ‘제 앞가림’을 잘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교육해왔던 어머니가 병에서 회복되면서 삶에 대한 후회, 부끄러움의 감정을 내비친다. 그리고 자신이 딸에게 교육해왔던 감정의 절제에 대한 요구를 철회한다.

이성 중심의 보편규범은 규범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감정을 절제하고 차가운 이성과 단단한 정신으로 무장<sup>23)</sup>한 채 스스로의 삶을 의지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강조한다. ‘냉정할 것,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감정을 절제할 것’이라는 어머니의 그간의 교육은 보편규범의 이러한 삶의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삶은 주체 자신의 자기동일적 입장만을 내세워 ‘제 앞가림만’ 중시할 뿐 타자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반면 ‘웃고 울고 상처’ 받으면서 “내가 무거운 것을 들고 오면 못 들어줘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되고, 내가 바늘에 손톱 밑이라도 찔리면 제 손이 아픈 것같이 어쩔 줄을 모르곤” 하는 ‘약한 마음’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뜨거운 감성과 허약한 몸을 중시하는 삶에 해당한다. 이는 ‘나’의 독립성이나 자율성보다는 타인과의 감정적 관계나 의존을 중시하는 감정적 주체<sup>24)</sup>의 삶이다. 이러한 삶에 기반할 때 타자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감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타자에 대

23) 조주영, 「취약성 개념을 통한 상호주관적 인정관계의 재구성」, 『한국여성철학』 30, 한국여성 철학학회, 2018, 49면.

24) 조현준, 앞의 글, 103면.

한 주체의 윤리적 책임 혹은 주체와 타자의 연계를 말할 수 있다.

‘나’는 어머니의 변화를 계기로 자신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서 교육 받은 삶의 태도를 회의하고 반성한다. 그리고 ‘나’는 본래 갖고 있었던 ‘약한 마음’에 대해 긍정하게 된다. ‘약한 마음’은 감정의 절제가 아니라 타자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의미한다. 자기중심적 태도나 자기기만의 태도가 아니라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타자성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근본적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고개를 수그렸다. 바짝 마른 내 몸뚱이가 마치 공중에서 조감하듯 눈앞을 스쳤다. 나는 한갓 짐승이었다. 땀에 젖어 산비탈에 엎드린, 누더기 같은 한겹 가죽만 남은 병약한 짐승이었다. 그 가죽 안에서 약취 나는 거품처럼 부글거리고 있는 것은 오래 묵은 분노와 후회와 증오, 억울함과 자책과 부끄러움이었다. 그것들이 내 살을 속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부식시켜왔다. (중략)

내 얇은 마음 한겹, 누덕누덕 기워진 죄와 후회들을 짊어진 채로는 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나는 알았다. 그것들이 쇠로 만든 추처럼 내 몸에 올라타고 있었다. (111)

자식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후회를 들은 후, ‘나’는 남편과의 이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고 산을 오른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북한산을 오르면서 뜻밖의 말을 듣는다. 평소 냉정하고 강인한 모습만을 보여 주던 어머니가 곰살궂은 말로 ‘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다. 북한산을 올랐다가 “되돌아가려고 하면 꼭 산 저쪽에 너를 남겨두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할 때도 있었다”라든가, “이 산이 너를 나하고 이어주는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더 커 보이기도 하더라”(108)와 같은 말을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몸둘 바를 몰라한다. 늙고 병든 어머니보다 더 허약한 몸이

되어 산길을 올라가지도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동안 그와의 관계가 악취나는 감정으로 점철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오래 묵은 분노와 후회와 증오, 억울함과 자책과 부끄러움” 같은 감정이 조금씩 자신을 부식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이성적 주체로서 그런 감정을 극력 억제해왔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바로 자신의 것임을 인지하면서, 자신 또한 ‘누더기 같은 한겹 가죽만 남은 병약한 짐승’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

화상 흉터로 뒤덮인 그의 몸을 거부하고 혐오하는 ‘나’의 행위는 정상적인 몸만을 용인하고 비정상적인 몸을 배제하는 주체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나’ 스스로 ‘병약한 짐승’임을 깨달음으로써 주체로서의 ‘나’ 또한 근본적인 신체적 취약성을 지닌 존재임을 절감한다.

열두살 즈음이었다. 멀쩡하게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내 몸 위로 떨어질까봐 강박적으로 겁을 먹은 적이 있었다. (중략) 형광등이 어머니에게 떨어지는 것은 괜찮았다는 것은 아니다. 형광등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걱정이 다만 이상스런 불안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100)

인간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생각은 어릴 적 ‘나’의 경험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드러난다. ‘나’는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떨어질까 강박적으로 불안해하던 어릴 적 ‘나’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 회상을 매개로,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양치질을 네 번씩이나 반복하는 그의 강박과 불안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감기에 걸린 ‘나’를 병원체를 품은 숙주처럼 대하는 그의 태도도 그런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화상 흉터로 얼룩진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눈물을 삼키는 그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이 깨달음을 계기로 ‘나’의 이름 모를 증상의 원인이 남편을 혐오하는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성한다. 이를 통해, ‘나’는 아픈 몸, 병든 몸, 훼손된 몸에 대한 ‘나’의 왜곡된 시선을 반성하고, 그의 아픔과 공감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이처럼 ‘나’는 이전의 차가운 이성에서 벗어나 ‘나의 아픔과 타자의 아픔을 감정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반성적 성찰의 주체로 거듭난다.

① 그는 내 얼굴에서 무슨 표정인가가 떠오르기를,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의 심각한 표정에는 어떤 종류의 단호함이 어려 있었다. 그는 단정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이 내 과오였다고 명백히 결론내리고 싶은 것이다. 아마도 그의 결론은 옳을 것이다.

그 여자는 알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의 이런 면을 알까. 스스로의 논리 속에서 자신의 입장이 완벽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면을 알까. 그것이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약한 마음에서 비롯된 강박인 것을 알까.(115)

② 어느 겨울에 다쳤는지 그의 붉은 목덜미에도 상처가 있었다. 무엇인가에 삼 센티미터쯤 베인 자국이 일그러진 흉터 가운데 갈라져 있었다. 응고된 멍피를 향해 나는 손을 뻗었다. 그곳에 내 떨리는 손이 닿은 순간,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그의 어깨가 소스라쳤다. (124~125)

‘나’는 ‘나’의 ‘약한 마음’으로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약한 마음’에 감응하면서(①) 비로소 그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을 바탕으로, ‘나’는 그의 ‘일그러진 흉터 가운데’ 생긴 ‘응고된 멍피’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는다(②).

이 세 단계를 통해 ‘나’는 폭력적 주체에서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주체로 변화한다. 남편의 흉터에 대한 혐오로 드러났던 ‘나’의 폭력성은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타자의 아픔을 공유하고 ‘나’와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생강향 같은 나무냄새가 촉촉이 번져 있었다. 갈참나무들은 아직 헐벗은 나뭇가지들을 허공으로 뻗어올린 채 침묵에 잠겼지만, 저 검은 나무껍질 속에도 봄 대지의즙이 흘러올라와 있을 것이다. 일주일 쯤 더 지나면 잎눈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얼음 풀린 계곡을 향해 허리를 구부린 소나무들을 바라보다가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겨울부터 저 날카로운 솔잎들은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같은 푸른색이지만 분명히 달랐다. 방금 나온 어린 싹 같은 연푸른빛이 생생하게 차올라 있었다.

겨울에는 견뎠고 봄에는 기쁘다. (125)

‘나는 산책을 나갔다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변화를 발견한다. 산을 하나의 숲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나무들, 생강향 같은 나무냄새를 퍼뜨리는 나무들, 검은 나무껍질을 가진 갈참나무들, 계곡을 향해 허리를 구부린 소나무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봄을 맞이해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섬세하게 읽어낸다. 그리고 늘 초록빛을 띠고 있다고 여겼던 솔잎들이 모두 같은 푸른색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색을 띠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여기서, ‘같은’ 것 속에 ‘다른’ 것이 있다는 시선에 주목하자. 그것을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 비유해 사유해 보자면, ‘같음’을 강조하는 시선은 주체의 자기동일성에 근거해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 경우, 다름에 대한 배제와 억압, 비정상을 향한 폭력성이 강화된다. 그러나 같음 속의 ‘다름’을 인식하는 경우, 주체는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같음 속에 다름이 있음을 인식하고, 다름을 향한 자기동일적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를 향해 혐오를 토해내던 그간의 태도에서 벗어난다. ‘나는 산책을 하면서 ‘숲’을 보는 시선에서 ‘나무’를 보는 시선으로, 그리고 각각의 나무의 ‘다름’을 발견하는 시선으로 이동시켜 나간다. “방금 나온

어린 싹 같은 연푸른빛이 생생하게 차올라 있었다. 겨울에는 견뎠고 봄에는 기쁘다.”라는 표현은, 자기동일적 태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 입각해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타자의 아픔과 공감하는 주체의 시선에서만 배태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이 작품은 이 작품 이후 『채식주의자』 연작으로 나아가면서 주체와 타자,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대안적 특수규범을 지향하는 한강 문학에서 그러한 규범의 원형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아가 이 작품은 주체와 타자의 새로운 윤리적 관계 설정을 고찰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 여성 정체성을 다루는 한국 소설이 나아갈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 5. 맺음말

이 글은 2000년대 이후 여성 문제를 다루는 한국 소설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강의 「아기부처」를 대상으로 하여, 작품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윤리성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주디스 버틀러의 개념을 원용하였다.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새로운 윤리적 주체는 자신의 성립조건인 추상적 보편규범과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주체의 신체적 취약성과 타자연관성을 자각하는 태도에서 출발해,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키지 않으면서 타자를 살리는 윤리로 나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타자와의 공거를 지향해야 한다. 「아기부처」는 화상의 흉터를 지닌 남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의 몸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나’가 원인 모를 증상을 겪으면서 남편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통해 타자와의 공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나’, ‘나’의 남편인 그, ‘나’의 어머니의 관계와 관계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윤리성의 측면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보편규범에 의해 비정상은 타자화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정상만이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의 화상 흉터는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신체적 취약성의 표상이지만,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에 기초한 보편규범에 의해 비정상적, 비체적인 것으로 여겨져 타자화되고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는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흉터를 감추고 출세지향주의, 성공제일주의 같은 보편규범을 수행한다. 그러나 정상성을 향한 그의 욕망에 비례해 그의 흉터에 각인된 아픔과 결핍은 강화되고, 결국 그의 삶은 파국으로 치달린다.

3장에서는 자기동일적 주체에 의해 타자의 타자성이 말살당하고 타자가 억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체 ‘나’는 그를 타자화해 억압한다. 먼저, ‘나’는 주체의 자기동일성에 근거해 그의 타자성을 말살하면서 ‘나’에게 복종하는 그에게 동정을 베푼다. 다음, ‘나’는 정상적인 몸에 대한 욕망을 강화하면서 그의 비정상적인 몸에 대한 혐오와 경멸을 노골화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를 구성적 외부로 추방해 호모 사케르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면서 시혜와 징벌이라는 이중적 태도로 철저하게 배제하고 억압한다.

4장에서는 주체가 근본적 취약성과 타자와의 상호의존성을 깨닫고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타자와의 공거를 지향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나’는 남편의 여자와의 만남, 자폐 아동을 위한 삽화 그리기, 어머니의 삶의 태도 변화 등의 세 가지 사건을 매개로 폭력적 주체에서 반성적 성찰의 주체로 거듭난다. 그 과정은, 주체의 불일치 혹은 분열을 경험하면서 주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정하고 타자와의 필연적 연루를 깨닫는 것, 주체의 판단을 유보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타자의 아픔과 공감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이성적이고 정신적 삶에서 벗어나 감정적 주체로서 주체의 근본적 취약성을 깨닫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궁극적으로 타자와의 공거를 지향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

품은 주체와 타자,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대안적 특수규범을 지향하는 한강 문학에서 그러한 규범의 원형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작품은 여성을 타자화된 자리가 아닌 '주어'의 자리로 이동시켜 여성의 정체성과 윤리에 관한 문제의식을 이끌어냄으로써, 2000년대 이후 여성 문제를 다루는 한국 소설이 나아갈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설 사적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한강, 「아기부처」, 『내 여자의 열매』, 창비, 2000.  
\_\_\_\_\_, 「내 여자의 열매」, 『내 여자의 열매』, 창비, 2000.  
\_\_\_\_\_, 『채식주의자』, 창비, 2007.

2. 단행본

- Agamben Giorgio,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Butler Judith, 김윤성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_\_\_\_\_,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_\_\_\_\_,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_\_\_\_\_, *Parting Ways: Jewishness and the Critique of Zionism*, New York: Columbia UP, 2012.  
Creed Babara, 손희정 역, 『여성괴물』, 여이연, 1998.  
Kristeva Julia,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3. 논문

- 김미정, 「한강의 소설이 그리는 “식물-되기”를 들뢰즈 이론으로 읽기」, 『현대영미어문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현대영미어문학회, 2019, 24-29면.  
김은주, 「탈근대적 윤리적 주체화와 책임의 새로운 지평」, 『한국여성철학』 29, 한국여성철학학회, 2018, 58-86면.  
나병철, 「한강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환상과 에로스의 회생」, 『내 여자의 열매』와 「몽고반점」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61, 청람어문교육학회, 2017, 291-323면.  
박진, 「한강 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의 양상과 타자 윤리 문제」,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287-309면.  
손정수, 「식물이 자라는 속도로 글쓰기-한강론」, 『작가세계』 88, 2011, 봄호.  
송연주, 「여성소설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와 환상성 연구-한강, 오수연, 송경아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283-308면.  
신수정, 「한강의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9권 2호, 문학과환경학회, 2010, 193-211면.

- 심진경, 「변신하는 주체와 심리적 현실로서의 환상-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5,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61-76면.
- 양현진, 「한강 소설의 분신(分身) 구조와 주체성」,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247-280면.
- 양효실, 「타자와 실패의 윤리」, 『시대와 철학』 6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41-72면.
-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451-481면.
- 이현재, 「인간의 자기 한계 인식과 여성주의적 인정의 윤리」, 『한국여성학』 23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7, 111-141면.
- 임옥희, 「혐오발언, 혐오감, 타자로서 이웃」, 『도시인문학연구』 8권 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6, 79-101면.
- 전혜은,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영미문학페미니즘』 19권 2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11, 153-191면.
- 정미숙, 「욕망,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의 욕망 분석」, 『코기토』 6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7-32면.
- 조주영, 「취약성 개념을 통한 상호주관적 인정관계의 재구성」, 『한국여성철학』 30, 한국여성철학학회, 2018, 34-59면.
- 조현준, 「갈림길을 마주한 불확실한 삶」, 『시대와 철학』 25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97-130면.
- 함정임, 「2000년대 한국 소설의 생태학적 고찰 : 한강, 편혜영, 박형서, 김태용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9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0, 213-214면.

<Abstract>

## The Violence of Disgust and the Ethics of Cohabitation in Han Gang's novel, 「Baby Buddha」

Joo, Jiyoung

This articl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in the Han Gang's novel "Baby Buddha" and the aspect of ethics. This article used Judith Butler's concept of ethical subject. The ethical subject reflects on his/her own condition of establishment, universal norms, and aims to cohabitation with others while being aware of the subject's physical vulnerability and other natural inertia.

In Chapter 2, focusing on his burn scar, the process in which the abnormalities is differentiated by universal norms, becomes an object of disgust, and only the normal is composed of the subject was examined. In Chapter 3, the process of eradicating otherness by the self-identical subject "I" and suppressing others was examined in the order of "sympathy," "hate," and "favor and punishment." In Chapter 4, we looked at the process in which the subject "I" realizes the subject's fundamental vulnerability and interdependence with others through reflective reflection, recognizes otherness, and aims to cohabitation with others.

Key words: Han Gang, Baby Buddha, subject, others, universal norms, otherness, critical reflection, fundamental vulnerability, interdependence with others, cohabitation with others, ethical subject, hate, emotional subject



투 고 일: 2022년 5월 25일

심 사 일: 2022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2022년 6월 20일